

#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



한국가톨릭병원협회  
CATHOLIC HOSPITAL ASSOCIATION  
OF KOREA

# 부 록

## I.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 .....	69
머 리 말	
이념 제정의 배경 .....	70
이념 전문(前文) 해설 .....	71
1.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2. 그리스도를 우리안에 재현함	
3. 실천의지	
이념 본문 해설	
각 론(1) .....	73
1. 전인치료	
2. 치유자이신 그리스도	
3. 치료에 대한 믿음	
각 론(2) .....	74
1. 역량있는 의료인 양성교육	
2. 첨단의학 연구와 개발	
3. 그리스도적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인상의 구현	
각 론(3) .....	76
1. 최선의 치료	
2. 예방과 재활	
3.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연구	
각 론(4) .....	77
1. 질병회복을 통한 하느님사랑의 체험	
2. 죽음의 의미와 신비	
3. 원목활동과 호스피스 활동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각 론(5) .....	79
1. 가난한 사람	
2. 의료자선	
3. 복음적 경영	
각종 기도문 .....	81
1. 환자를 위한 기도문	
2. 수술전 기도문	
3. 수술후 기도문	

II. 가톨릭의료기관 주소록 .....	82
-----------------------	----

##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은 치유자로서의 예수그리스도를 우리안에 재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학을 연구 발전시키며, 사랑에 찬 의료봉사를 베풀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 우리는 환자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며, 끊임없는 기도와 봉사로써 우리자신은 물론 환자와 그의 가족도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
-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닌 역량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고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아낌없는 사랑으로 환자를 보살피도록 교육한다.
- 우리는 질병퇴치를 위한 최선의 예방 및 치료와 재활에 힘쓰며 인간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해치는 어떠한 연구나 시술도 하지 않는다.
-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는 환자가 하느님의 사랑을 새롭게 체험하고 그의 자녀가 되도록 이끈다. 또한 죽음을 맞는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인간다운 품위를 지니도록 돕는다.
- 우리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이며, 이들도 따뜻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쓴다.

**한국가톨릭병원협회**

## 머 리 말

###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제정의 배경

가톨릭 교회가 지난 2,000여년 동안 줄곧 의료활동에 깊이 관여해 온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창설자이신 예수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의 지상 교회가 나자렛 예수의 삶과 활동을 본받으며, 그의 치유능력을 성령의 선물로 받아(1 고린 12:9) 병자들에게 실천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데 있습니다.

더구나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인간(창세 1:27)의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성숙과 사회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할 교회로서 이를 위한 기술적 연구와 봉사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에 남보다 앞장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최근까지도 교회 의료사업은 주로 자선의료 활동을 그 기본내용으로 해 왔습니다. 이것은 건강이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정받지 못한 정치, 경제, 사회제도 하에서 질병을 가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들을 교회가 돌봐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들어 급격한 사회변천과 의료의 사회화 추세는 점차 교회의료의 이런 사회적 기능을 감소시켜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교회의료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 그 자체가 적어졌다거나 그래서 교회의료의 존재이유가 없어져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가령, “오늘날 의학은 인간 공동생활 안에서의 교육의 경향, 전인적 평가, 조직사회의 상관적 생활행동, 변천되거나 잊어버린 가치관의 회복, 그리고 인류의 희망을 위한 새로운 의미부여 등에 있어서 과거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고 …” 라고 가르치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말씀처럼 오늘날 교회의료는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의료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현존을 증명해 보일 의무를 지니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의료의 다양성과 현대적 관리운영의 전문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원칙적이고 전통적인 교회의료 활동을 펴는 데 있어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교회의료는 시대에 맞는 관리운영으로 우리의 사업을 펴나가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며, 또 그 어느때보다 더욱 더 올바른 직업관과 높은 윤리의식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가톨릭 의료이념을 구현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는 가톨릭의료기관이 추구해야 할 본래의 사명을 재 확인하며, 교회의료 기관으로서의 사명과 지향하는 이념을 정립하고, 우리 모두 이에 따라 모범적으로 생활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자각에서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 <전문해설>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은 치유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안에 재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살피는데 있다.

우리는 이를 위하여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의료인을 양성하고 의학을 연구 발전시키며 사랑에 찬 의료봉사를 베풀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가톨릭의료기관의 이념의 전문은 총론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안에 재현한다는 이념의 기본정신과 이를 구체적인 의료봉사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목표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담고 있다.

### 1.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고통으로부터 근본적으로 해방시키는 데 온 생애를 바치셨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병의 치유자이시라는 것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성서상에 표현된 예수님의 치유행적을 찾아보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나환자를 고치셨고(마태 8:2-4), 백인대장의 하인의 병을 낫게 했으며(루가 7:1-10), 베드로의 장모와 많은 마귀들린 사람들과 다른 병자들도 고쳐주셨다(마르 1:29-34), 또 중풍병자를 (마르 2:1-12), 하혈하는 부인을(루가 8:40-56), 소경과 병어리들을(마태 9:27-34) 고치셨으며, 죽은 회장당의 딸과(마태9:18-26), 과부의 아들(루가 7:11-17) 그리고 라자로(요한 11:38-44)를 살려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신 근본적인 동기는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었다.

그러므로 치유는 사랑의 열매요, 귀결이다. 사랑 안에서 사랑을 통한 것이 아닌 한 우리의 의료는 육체적 치료는 될지언정 참된 인간치유는 되지 못한다.

### 2. 그리스도를 우리안에 재현함

그러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안에 재현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가톨릭 교회는 시초부터 환자를 돌보아 주는 구료사업을 통하여 환자 하나하나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과 연민을 드러내려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정신을 본받으려 한 것이다. 예수께서는 환자를 치유함에 있어, 앓고 있는 병이나 병력에 관심을 두지않고 그병을 앓고 있는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두셨다. 어떠한 증세가 있는지,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얼마나 아픈지 등을 물어 보기 보다는 병을 앓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었고, 그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신념, 곧 믿음에 대하여 혹은 그가 지니고 있는 인간적 결함에 대하여 말씀하시곤 하셨다.

예수님이 평생토록 꼭 이루시려 하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 주시려는 것이었으므로 육체나 정신의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면서도 그분의 의도는 늘 환자나 가족으로 하여금 우리 생명과 질병의 치유는 바로 하느님께로 온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활동을 전수하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안에 재현함이라고 볼 수 있다.

### 3. 실천의지

전문의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제시된 이념의 구현을 위한 실천의지와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즉, 숭고한 사명감을 지닌 의료인을 양성하고 최신의 의학을 연구발전시키는 물론 전인진료 차원에서, 보다 양질의 진료를 베풀고 나아가 높은 인간애와 선교정신에 바탕을 둔 원목 및 자선활동을 펴 나가려는 실천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에 가톨릭 교회가 들어온지 200여년, 그동안 우리교회는 선교활동 초기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고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역교회와 수도단체들은 가난하고 의지할 곳 없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한 자선 의료시설들을 설립하고 운영해 왔다.

특히 1967년에는 본 협회를 창립하여 “의료사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이념아래 교회공동체로서 가톨릭의료기관들이 협동하여 학술과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여 보다 현대적인 의료활동을 펴는데 노력하고 있다. 또한 회원기관중에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 등을 설립하여 가톨릭정신에 입각한 전문의료인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점차로 비대해지는 기관의 운영과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우리의 본래 사명과 사회를 향한 구체적 역할 수행을 소홀히 하게 될 위험도 없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부 가난한 지역에서 무거운 짐을지고 주로 자선사업을 펴고 있는 의원, 진료소등 소규모 가톨릭의료기관들이 운영난으로 중도에 좌절하지 않도록 서로 돕는 일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 <각론1 해설>

우리는 환자의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고통을 덜어주며 끊임없는 기도와 봉사로서 우리 자신은 물론 환자와 그의 가족도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한다.

본 각론1은 질병의 참된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전인치료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다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가톨릭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우리(의료인과 모든직원)모두가 치유의 봉사직에 참여하여 의료 사도직을 수행하는 자로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안에 재현하도록 한다는 것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베풀도록 힘쓰되

모든 질병의 치유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단지 그분의 도구일 뿐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다짐한다.

## 1. 전인치료

질병은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도 병들게 한다.

몸이 마음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마음 또한 몸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육체적인 질병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까지 제거해 주어야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 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병, 뇌성마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병을 치료하실 때 병 자체만을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심리적 장애도 꿰뚫어 보시고 사랑으로 인간전체를 즉 전인치료를 해 주셨다.

환자는 단순히 간이나, 폐, 심장, 신장 등의 신체 장기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각종 증세가 병적기능,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포심과 희망도 가지고 있으며, 병고에서 헤어나려는 열망도 지닌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질병의 치유과정에서는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환자의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는 질병의 치유를 기대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에게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는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의료인이 환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언동이 단정하고 정중해야 하며, 질병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능한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 의료사도직을 수행하는 우리는 인간의 영적, 심리적, 육체적인 면을 포함하여 인간전체를 사랑으로 치료하는 전인치료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 2. 치유자이신 그리스도

모든 치유는 하느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이며, 우리는 단지 인간전체를 구원에 이르게 하 시려는 하느님의 치유계획에 동참할 뿐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환자와 그의 가족들도 이와같은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예수님이 평생토록 꼭 이루시려 하신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 주시려는 것이었으므로 육체나 정신의 병을 기적적으로 치유하시면서도 그분의 의도는 늘 그 환자나 가족으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과 치유는 바로 하느님께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는 데 있었다.

그래서 늘 환자나 그 가족에게 “내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다고 믿느냐?” (믿음의 촉구)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안심해라 네죄는 사하여졌다” (믿음의 확인)는 말씀으로 기적적 치유를 이루어 주셨고 이를 통해 환자나 그 가족의 인간구원을 도모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가톨릭 의료기관에 찾아오는 환자들이 '질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하느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 병의 치료결과를 하느님 뜻에 맡기도록 곁에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 3. 치료에 대한 믿음

우리는 생명체의 해부, 생리, 병리 및 치료과정 등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깊이 고찰해 보면 실은 그들의 일부만을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인간의 지식과 기술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된다.

질병 가운데서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있지만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치유할 수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편 현재의 의학지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의외의 치유과정들도 종종 경험한다. 그러므로 현대의학으로 치유되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반드시 인간의 뜻과 일치 하니만은 앎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께 의탁하고 하느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믿음 안에서 진료에 임해야 한다.

#### <각론2 해설>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닌 역량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고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아낌없는 사랑으로 환자를 보살피도록 교육한다.

본 각론 2는 실력있고 사랑에 찬 의료인 양성에 대한 우리 가톨릭의료기관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서, 의학교육기관의 학생들은 물론 우리 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이 보다 최선의 기술을 익혀 실력있는 의료인이 되도록 하는 동시에 교회의료기관 종사자답게 우리 모두 크리스찬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다짐을 확고히 하자는 것이다.

#### 1. 역량있는 의료인 양성 교육

가톨릭 의학교육기관을 통한 실력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양성은 우리 가톨릭의료기관이 해야 하는 다른 어느 일보다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

이 대학을 졸업하는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이 병원에서는 자신있게 환자진료와 간호업무에 종사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주민의 건강증진 활동에 앞장서는 월인이 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재학중 최상의 의학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새로운 의학교육 방법론의 도입과 시설 및 인력을 개발함에 있어서도 다른 어느 대학보다 앞서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들에게도 이들이 환자진료는 물론 병원생활 전체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 그리고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적절한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 2. 첨단의학 연구와 기술개발

우리는 역량있는 의료인 양성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끊임없는 노력을 다짐하는 동시에 스스로 이런일에 있어서 국내 어느 의료기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자긍심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우리의 다짐과 자긍심이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학연구와 기술 개발에도 앞장서도록 자극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동안에도 우리 의료기관은 장학 제도를 발전시켜 특수연구 개발과 교원의 해외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준높은 연구논문의 외국발표를 적극 장려해 오고 있거니와 최첨단 의학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외에 널리 알려지고 또 그만큼 지역사회와 인류전체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3. 그리스도적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인상의 구현

가톨릭 교회의 모든 의료활동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그리스도의 복음전파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하는 의학교육은 우선 참된 인성교육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의료활동을 늘 그리스도적 사랑을 실천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어느 의료기관보다 앞서 우리기관이 의학윤리를 강화하고 병원내 호스피스활동을 포함한 원목활동에 남다른 애를 쓰고 있는것도 바로 이런 우리의 이념정신 때문인 것이다.

물론,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인상의 구현이 단 한두 과목의 윤리교육이나 일부 원목담당자들에 의한 봉사활동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은 배워서 실천하는 것이라는 이치를 따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기관 모든 종사자들이 깨닫고 얻게 되는 이념정신과 실천의지의 다짐 효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본다.

우리 모두 참된 그리스도적 사랑을 실천하는 의료인이 되는 일에 노력한다는 이 다짐은 가톨릭의료기관이 추구하는 이념실현 바로 그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각론3 해설>

우리는 질병퇴치를 위한 최선의 예방 및 치료와 재활에 힘쓰되 인간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해치는 어떠한 연구나 기술도 하지 않는다.

본 각론 3은 우리 가톨릭의료기관의 기능이 단지 질병치료에만 있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질병예방과 재활, 그리고 생명수호에 앞장섬을 다짐하는 것으로써, 여기서는 인간생명이 오로지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거절할 수가 없고 또 이를 파괴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과 이러한 고귀한 인간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여 진료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짐하고 있다. 아울러 인간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해치는 일은 그것이 설사 첨단기술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결코 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 1. 최선의 치료

최선의 치료라 함은 학계에서 인정되는 과학적인 최선의 기술과 개개인의 복잡한 심리적인 치료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치료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개되는 의학의 최신정보를 최대한으로 수용하면서 기술을 연마하여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환자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윤리적인 사명감으로 우리 자신들을 무장할 것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질의 의료는 지구상의 모든인간, 특히 모든 계층의 환자에게 균등하게 베풀어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가톨릭의료기관은 최신의 의료진단 및 치료시설을 갖추는 한편 진료팀 모두는 높은 인간애를 발휘하여 전인적인 진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 2. 예방과 재활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도 예방을 통해서 질병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다.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성인병 등의 예방과 각종 사고 및 산업재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각종 매스콤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계몽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근래에 와서 각종 사고의 증가와 의학의 발달로 인한 생존자의 증가는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자를 많이 배출하고 있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노인장애자의 수까지도 추가되어 이들에 대한 재활문제는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장애자는 계속해서 환자로 보아 재활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새로운 의료의 개념이다. 우리는 의료재활을 통해서 장애자들의 삶의 가치를 높혀 줄 수가 있는데, 이는 인간다운 삶을 강조하는 가톨릭의 근본정신에도 부합된다.

## 3.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연구

인간을 질병에서 해방시키고 삶의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의학발전이 요구된다. 다만 새로운 의학발전의 과정에서 인간생명의 신비와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있다면, 이는 가톨릭 정신에 위배된다.

예컨대, 자연법에 의하지 않는 인공적인 수태조절, 인공수정, 임신중절, 안락사등은 인간의 생명의 신비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이와 반대로 임종환자에게 편안하고 의미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

스운동은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높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장기이식술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타인의 생명을 구해주는 숭고한 인간접촉이기에 장려되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장기 매매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약물이나 수술을 통한 인체실험은 물론 생명 자체를 직접적인 실험대상으로 삼는 연구는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결코 허락될 수가 없다.

#### <각론4 해설>

우리는 건강을 회복하는 환자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의 자녀가 되도록 이끈다. 또한 죽음을 맞는 이들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인간다운 품위를 지니도록 돕는다.

본 각론 4는 우리가 교회의료 기관으로서의 갖는 사목적 기능과 특히 임종자들을 위한 선종봉사 기능을 확실히 하는 것으로써 여기서는 하느님의 구원계획에 있어서 병과 고통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고, 환자들에게 병의 고통과 치유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하며, 또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나 실패가 아니며, 최후의 치유와 생의 완성임을 확인한다. 우리 가톨릭의료기관이 전인치료의 일환으로 원목활동과 호스피스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 1. 질병회복을 통한 하느님 사랑의 체험

성서를 보면 예수께서는 활동하시는 동안 어디서나 환자들을 만나셨다. 예수께서는 병자들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들어(마태 20:34)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

예수의 치유행위는 이제 이 세상에서 질병이 당장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에 가서는 결국 질병을 완전히 소멸시키실 하느님의 능력이 지금부터 이미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모든 병자들에게(마르 1:4, 마태 8:2-6) 예수께서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이다. 신앙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므로,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마태 9:28, 마르 5:36, 루카 8:50, 9:23)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셨던 치유의 기적들은 예언서들이 말하는 하느님나라에서 인류가 장차 향유할 완전한 상태를 어느정도 앞당겨 맛보게 하는 셈이다. 하느님 나라의 표징으로서의 기적적인 치유는, 우리 인간들의 병의 체험을 통해서 인간적으로 성숙하게 하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깨닫게 한다.

의료인들은 치유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병과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인간의 성숙을 성취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믿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요한 15:7)

## 2. 죽음의 의미와 신비

모든 사람은 죽음을 체험한다. 성서의 계시는 허망한 꿈속으로 도피하듯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죽음의 사실을 또렷이 직명함으로써 시작한다. 누구나 “보게 될 죽

음”(시편89:49, 루가2:26, 요한8:51)이요, 또한 “맞보게 될 죽음”(마태16:28, 마르9:1, 루가9:27, 요한8:52, 히브2:9)이기에, 모든 사람은 이 죽음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는 인생에 단지 죽음의 허무와 비극이 있었을 뿐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당신죽음으로 죽음 자체를 이기셨다. 이때부터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새로운 의미로 바뀌어 진다.

인간의 역사안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과 함께 같은 조건으로 생활하셨던 예수그리스도가 인간처럼 죽으심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을 죽음에서 해방시켰다. 의료진의 치료과정에서 가끔 현대의학의 힘으로 죽음에 이르는 환자들을 회복시킬 수 없음을 본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치료의 실패로 생각하지 말고, 죽음을 하나의 생의 현실,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 또 죽음은 인간의 최후의 성숙, 병의 최종적 치유이다. 우리는 임종자들이 인간다운 품위를 갖고 자신의 죽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 3. 원목활동과 호스피스 활동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첫번째 파견하실 때 병을 고치는 당신의 권한에 그들이 참여케 하였고(마태10:1), 마지막 파견 장면에서는 그들의 복음 선포에 그런 표징이 뒤따르리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마르16:17-18)

따라서 사도행전은, 예수부활의 실제성과,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드러내는 치유의 기적사화를 여러차례 기록하고 있다.(사도3:1-3, 8:7, 9:32-34, 14:8-10, 28:8-9)

그러므로 우리 기관내의 모든 직원들은 그들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봉사자체를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고통을 직접 다루는 의료진과 또 함께 전인치료의 일을 담당하는 원목부서는 물론 모든 관리부서에 가톨릭적 분위기가 무르익도록 우리 모두가 업무와 기도 및 전례를 통하여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자각과 긍지를 가져야 한다.

#### <각론5 해설>

우리는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의 어려운 형편에 마음을 기울이며 이들도 따뜻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쓴다.

본 각론 5는 교회의료 기관으로서 우리 가톨릭의료기관이 갖는 자선의료와 복음적 경영에 대한 실천의지의 표명으로서 이는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루가4:16)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기쁜소식) 선포의 대상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이는 진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환자들에게도 우리가 따뜻한 의료혜택을 베푸는 일은 바로 가난한 이들의 참된 벗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안에 재현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

는 일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둘 일은 이런 의료혜택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가난과 의료자선이 갖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올바르게 실천함으로써 이 일을 진정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 1. 가난한 사람

일반적으로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필요로 하는 것은 갖지못한 물질적인, 경제적인 빈곤을 가난으로 볼 때에 우리 주변에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필요로 하는 것을 자유, 행복, 성공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가난은 물질적, 경제적인 궁핍으로 축소 해석해야 함과 동시에, 가난에 대한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이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성서의 가르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난의 가치를 따로 부여하고 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마태5:2)와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필립2:6)등의 말씀은 탐욕에서의 해방, 물질에 대한 끝없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영성적인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임을 말한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에는 실제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며,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과 이들을 돕기 위해 자선을 베풀 수 있는 복음적, 영성적인 사람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이러한 복음적, 영성적인 가난한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물질적인 가난중에 사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사도2:44)는 말씀이 소유권의 포기가 아니고 재산을 서로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공동체 안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는 목적의 '재산공유'의 뜻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에 누가 가난한 사람인가의 명제는 모든 사람이 가난하다고 느끼는 상대적인 뜻을 복음적, 영성적인 가난의 의미로 승화시켜 사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가난한 사람”으로 규정지어야 한다는 풀이를 할 수 있게 된다.

## 2. 의료자선

자선의 의미는 나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선은 기관과 조직을 통하여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자선행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선을 사용할 수 있는 물질적 부를 소유한 사람이 있

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부(富)에 대한 무서운 경고를 여러차례(마태19:24, 8:36)하신 것은 부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경고하신 말씀이며, 자선을 베풀도록 권고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여야 하겠다.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끊임없이 자선을 베풀어야 한다. 다만, 도움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선정은 보다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의료기관도 복음적 의미의 가난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며, 물질적인 풍요가 '영성적 가난'을 통하여 가난한 환자들에게 아낌없이 의료자선을 베풀때에 비로소 이것은 가능하다. 물론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는 자선환자에게도 진료비를 지불할 수 있는 일반 환자와 동등한 의료혜택을 주어야 한다.

의료자선의 의미는 의료기관 밖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 환자들의 진료비로 발생된 이윤만으로 자선을 베풀기에는 기관의 부담이 너무 크다. 기관의 종사자들이 먼저 자선 기금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함은 물론 교회 공동체에서도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 못지 않게 의료자선에 참여하여 그 짐을 분담하여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단순히 타인이 기관에 소개, 인도만 하는 행위는 참된 의미의 자선이 아니다. 기관의 시설과 물품을 임의로 이용한 개인의 자선행위는 부당하다.

### 3. 복음적 경영

의료기관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로부터 진료비와 선의의 사람들이 내는 현금으로 경영되어야 하는 공동체이며, 기관의 참 주인은 어디까지나 하느님이시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회법적인 주인일 뿐 참 주인이 아니다. 법적인 주인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본 주인의 뜻을 바르게 구현해야 하는 충직한 관리자임을 자각해야 한다.

환자진료에 필요한 좋은 의료시설과 장비구입, 사랑에 찬 의료인 양성, 의학의 연구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경영을 하되 효과적인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종사자 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주어야 하며, 선의의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야 한다.

종사자 또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사용자와 함께 기관의 공동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맡은 임무를 창의적이고도 성실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하며, 영성적인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진해야 한다. <끝>